

## 행복한 금요 편지

# 죽음을 극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강국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sup>1)</sup>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벌어지는 지상생활의 인생역정은 긴 생명의 프로그램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의 프로그램은 3단계로 성장/완성되어 간다. 생명에 있어서 3의 수는 완성수이다.

세포의 유전자가 3개씩 짝을 지어 기능하고 인체의 구성도 肉身, 氣身, 智身の 3신 구조이며 불교의 3신불, 기독교의 3위일체, 대종교의 환인-환웅-환검 등 모든 종교의 3신 구조도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 우주의 법칙 속에 이러한 생명의 완성공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TV도 모니터, 전기, 프로그램의 3신 구조로 되어 있고 시간의 나눔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것은 3수완성의 공식에 근거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엄마의 복중에서 10개월간 수중생활을 하다가 출생하게 되면 100년간 공기 중에서 지상생활하게 되며 죽은 후에는 육신을 벗고 氣身-智身の 영인체가 우주 에너지의 세계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 지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모든 경험과 지식, 정보는 육신 속에 있는 氣身-智身の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신과 분리된다. 이것을 영, 영혼, 영체라고도 부른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강국희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요료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체에는 그 사람 개인의 일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가 죽음의 과정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재탄생하여 영생한다. 이러한 생명의 3단계 전개과정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죽음이 결코 슬퍼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출생임을 알 수 있다. 태아가 성장하여 10개월이 다 되면 출산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슬퍼하고 허무해하고 절망을 느끼지만 인생3단계 성장과정을 알고 보면 죽음은 3번째 단계 인생의 새출발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관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불교에서는 광명 즉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은 자신의 본래 모습 (total self)이라 했다. 기독교에서도 죽음을 부활이라 했고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명확한 개념이 없다. 사후의 세계는 종교인들에만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는 3단계 인생의 완성과정은 종교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의 일생을 보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임신이 되고 태아로 성장하여 출산할 때까지의 과정은 종교와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서 지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은 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며 죽음 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뿐이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 자란 후에 태어나는 과정은 가장 멋진 생명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태아가 한달 두달 성장하면서 엄마의 배가 불룩해지고 필요한 공간이 저절로 늘어난다. 모든 것이 자동조절된다. 출산의 때가 되면 진통이 오고 이 괴로움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출산 후에는 당분간 엄마의 품에서 먹고 자라는 데 필요한 젖이 저절로 나온다.

사람의 사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예지해 볼 수 있다.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임사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의학적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동안의 체험을 말하는 경우이며 수천 건에 이르는 자료가 나와 있다. 빙의현상도 있는데 영에 붙들림 현상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죽음에는 그 사람 전체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절망, 두려움, 불안, 분노, 허무, 원한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웃음, 밝음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

죽음을 슬픔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재탄생의 순간, 빛은 자신의 본래 모습(total self), 참된 자기(higher self)를 나타내는 것임을 자각할 때 웰다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웰다잉하신 분들은 우리주변, 역사에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고통없이 숨을 거둔 사람들, 집에서 목욕하다가 숨을 거둔 황장엽 선생, 저녁에 목욕하고 가사와 장삼을 가라 입고 의자에 앉아서 고요히 숨을 거둔 상원사 주지 스님 한암 선사 등이 그러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죽음을 선종[善終]이라고 하며 선종이 종교인들의 전용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종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평소에 생각을 훈련,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